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경제위기 해소의 지름길…

한국경제의 위기가 표면화된 지 3개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바람앞의 촛불」과 같은 갸날픈 보호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의 구제금융과 유럽 · 일본 · 미국 등 선진국의 협조융자, 그리고 국제 채권은행들이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함으로써 500억달러에 상당하는 달러 유입효과를 달성했고, 달러화 보유고가 2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98년 2월초에도 1500~1600원으로 외환위기가 닥쳐오기 이전의 880원대와는 한참 거리가 멀고, 전문가들의 예상치 또는 정부의 목표치라 할 수 있는 1100~1200원에 도달하기에도 숨가픈 지경이다. 물론 97년12월의 1700~2000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최소한 1200~1300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위기해소방안에 대한 냉철하고도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환율만이 문제는 아니다.

현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한 건전기업 도산이라 할 수 있다. 부실기업이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부도를 맞고 도산하는 것이야 어찌할 수 없겠으나, 건전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시중금리가 연 30%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기업도 살아남기 힘들고, 경쟁력 약화는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는 점은 경제전문가라면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 살인적인 고금리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처방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부채경영이 오늘의 위기를 몰고온 하나의 원인이고 부채경영으로 인해 과잉투자가 가능했다는 측면에서 오늘을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책임만을 따져 기업도산을 「강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던가 말이다. 특히, 건전한 중소기업의 도산이 계속된다면, 산업의 뿌리를 흔들어 경제재건의 기틀을 송두리째 갉아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처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왜, 오늘과 같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난국이 지속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5대재벌을 비롯한 재벌기업군의 구조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30대 재벌을 주축으로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면 자동적으로 경제위기국면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경제위기의 큰 부분을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중소기업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는 결론이다.

만약, 현대 · 삼성 · LG · 대우 · SK 등 5대재벌이 주력업종을 3~4개씩 선정하고 비주력업종 및 경쟁력 취약부문을 순수매각하거나 「Big Deal」을 통해 Swap한다면, 오늘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A 및 Swap을 통해 비주력 또는 경쟁력 취약부문을 퇴출하게 되면 첫째, 외국의 금융자본 또는 전문기업의 한국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달러화의 유입이 확대돼 외환위기가 자연적으로 해소되고 둘째, 달러화 유입에 따라 달러 부족현상이 해소되면 환율이 1100원 안팎으로 안정되며 셋째, 취약부문을 처분함으로써 자금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어 시중 자금난이 완화됨으로써 고금리문제가 해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환율이 안정되고 고금리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고물가도 해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위기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재벌들의 구조조정작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묘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0대재벌들도 이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재벌들은 소유욕을 버리고 경제위기 해소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크다는 점 강조해둔다.

<화학저널 1998/2/16.23>